

일본의 수출산업, 구조전환 모색

엔고, 税 부담, 전력제약 등등 이른바 6중고의 국내 어려운 사업 환경에 교역조건 악화까지 겹쳐 일본의 수출산업이 해외생산과 부품의 해외조달 확대, 수익률 증시의 수출전략 등 구조전환을 모색하고 있음

- 일본의 대표적인 수출산업인 자동차, 철강, 전기 등의 분야에서 구조 전환이 가시화되고 있음. 2011년 수출이 7.8% 감소한 자동차는 앞으로 부품수입을 늘릴 계획이며, 철강분야에서는 대기업들이 해외에서 고로사업을 검토
- AV(음향, 영상)기기의 무역적자가 전년보다 2배가 증가한 전기 관련 기업들은 국내생산을 더욱 축소. 작년 일본의 교역조건은 1960년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하였고, 무역수지는 31년 만에 적자로 반전. 기업들의 필사적인 구조 개혁으로 중장기적으로도 무역흑자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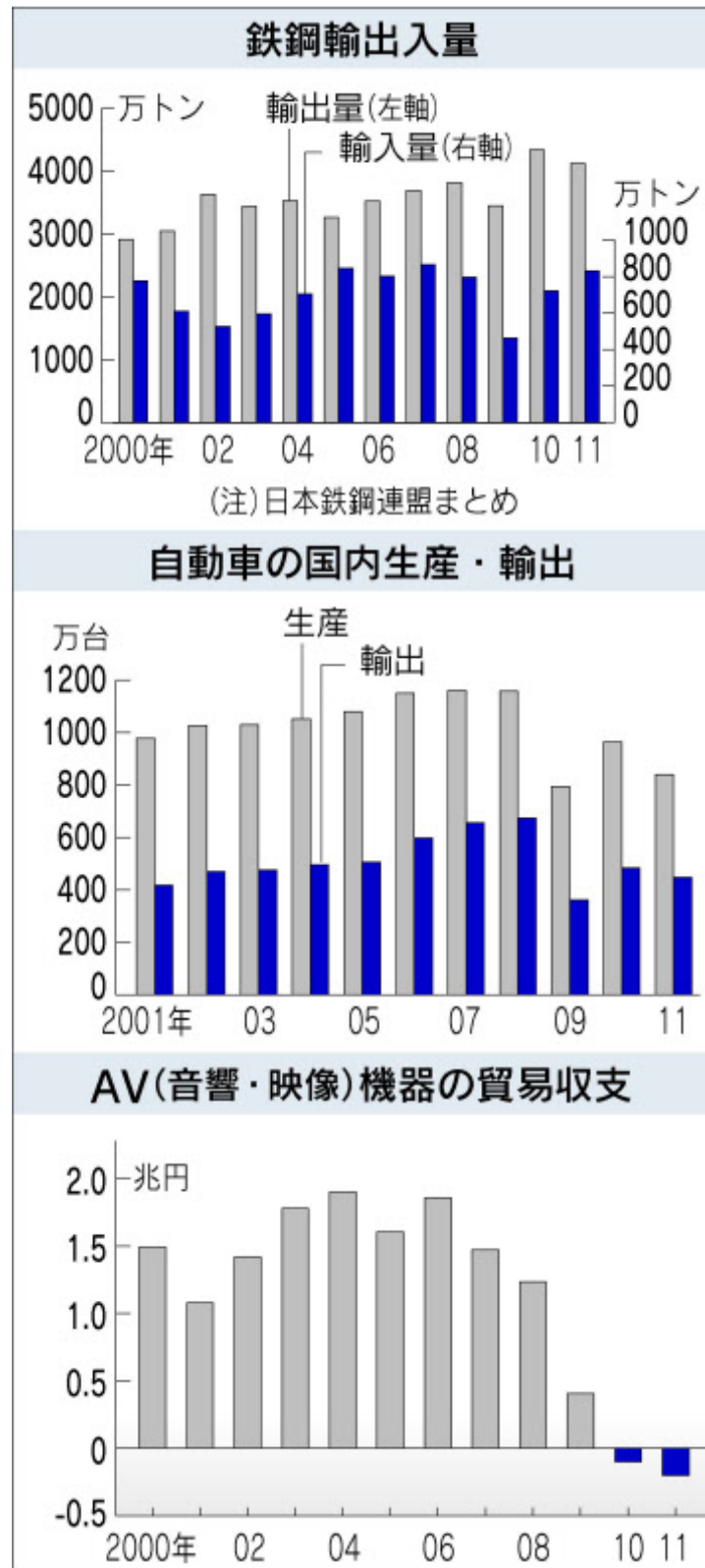
□ 자동차 수출 감소가 무역적자의 주범

- 2011년 완성차 수출은 446만대로 2년 만에 마이너스, 최고점인 672만대(2008)에 비해 30%나 감소. 동일본 대지진으로 국내생산이 부진한 영향도 있으나, 해외생산 등 구조적인 요인도 있어 2012 년에도 수출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

-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작년 한국의 대일 자동차부품 수출은 7.5억 달러로 전년보다 22% 증가. 시트벨트, 브레이크부품, 기어박스 등의 수출이 급증
- 도요타자동차는 작년 12월 서울에서 현대자동차 산하 부품기업 등 42개사들과 상담을 개최. 일본 부품·완성차의 수입이 향후에도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 분야의 무역흑자는 중장기적으로 감소될 전망

□ 닛산차체, 한국산부품 20% 사용

- 닛산차체는 큐슈에서 생산, 금년 여름 발매예정인 신형 상용차 「NV350카라반」에 한국산 부품을 20%(금액기준)채용하기로 함. 닛산·르노연합 산하 한국 르노·삼성자동차의 부품조달망을 활용, 내장재나 미러 등의 부품을 조달. 엔고·원저로 인한 저가 한국산 부품 사용을 늘려 코스트경쟁력을 유지한다는 전략임
- 이와 같은 전략은 닛산그룹이 한국산 부품을 본격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체제 구축으로 큐슈지역을 일본내 양산거점으로 설정, 지역적으로 가까운 아시아로부터 코스트경쟁력이 있는 부품을 적극 활용할 방침임
- 닛산차체의 자회사에서 주로 다목적 스포츠카(SUV)를 생산하는 닛산차체 큐슈가 르노·삼성의 거래처인 부산 주변에 거점을 둔 26개사로부터 부품을 조달하기로 결정
 - 한국산 부품은 품질이나 납기 면에서 일본산 부품과 거의 차이가 없는데다, 일본산 부품보다도 저렴하기 때문임



(자료) 일본경제신문, 2012.2.2.

□ 철강, 해외 일관제철소 건설 등 구조 개혁 검토

- 한편, 일본철강연맹이 발표한 2011년 일본의 철강수출은 전년비 5% 감소, 2년만에 전년수준을 하회. 수입은 15.2% 증가 2년 연속 증가
- 일본의 철강기업들은 리먼쇼크 이후 내수침체를 보전하기 위해 수출에 전력을 기울였으나 최근 수년 간 한국과 중국의 철강기업들이 설비를 증강한데다 엔고까지 가세하는 바람에 일본의 수출경쟁력이 저하. 한·중 기업들의 일부는 JIS를 취득, 일본에 수출 공세를 펴고 있다고 함
- 일본의 철강기업들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에 일관제철소 건설 등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검토 중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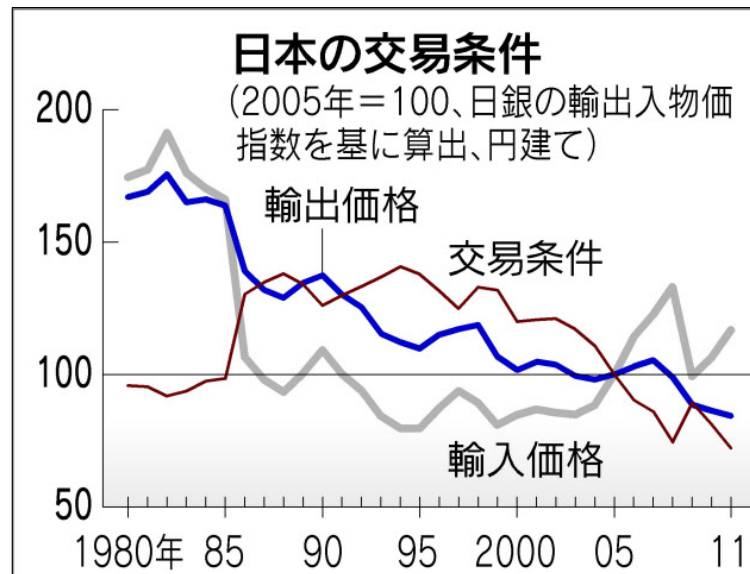
□ 수출견인 AV류의 해외생산 이전

- 전기분야에서는 수출을 견인해온 박형TV 및 디지털카메라의 해외생산이 확대, 2011년 AV기기의 무역적자는 전년보다 2배가 늘어난 2,000억 수준. AV기기는 1991년 3조 1,000억 엔의 무역흑자를 기록했으나 후발국들의 추격으로 시장 잠식

□ 일본의 교역조건 악화

- 일본 제조업의 전략전환이 불가피한 요인의 하나는 무역환경의 악화. 일본은행의 수출입물가지수를 기초로 산출한 2011년 일본의 교역조건은 72.2(2005년 100)으로 원유가격 급등으로 크게 떨어졌던 2008년의 74.4를 하회

- 일본의 교역조건은 신흥국들의 수요증가 등을 배경으로 자원수입 가격 상승이 시작된 2000년대 중반경부터 급속히 악화. 여기에 세계적인 수출경쟁 격화로 수출가격 하락이 계속된 것도 교역조건이 악화된 요인. 이 같은 교역조건 악화는 일본의 무역수익력 약화를 반영



(자료) 일본경제신문, 2012.2.2.

- 일본의 무역환경 악화는 다른 국가에 비해서도 두드러짐, IMF 자료를 토대로 주요국의 교역조건을 비교해보면, 일본의 71.3에 비하여 독일은 95.2, 한국은 79.6로 일본보다 높음
- 엔고, 税 부담, 전력 제약 등 이른바 6중고의 국내 어려운 사업 환경과 무역환경 악화가 계속되는 경우, 일본 기업들은 수익률을 중시하는 전략이 불가피하여 국내생산 축소가 지속될 전망

<참고자료>

일본경제신문(2012.1.19/2.2)